



# 10월 마지막 주말은 '할로윈'과 함께

### 조선대·대인시장·양림동 등 광주 곳곳 할로윈 기념 행사 플리마켓·페이스페인팅·의상 대어 가수들 공연·디제잉 파티 등 다채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에서 열린 '남도달밤야시장 시즌 2'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 대인시장은 할로윈을 맞이해 오는 29일까지 '남도달밤야시장 할로윈 특집'을 진행한다.

으스스한 호러 분위기로 귀신의 집까지, 10월의 마지막날을 기념하는 할로윈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각종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열린다.  
조선대학교와 동구 대인시장, 남구 소규모 마켓 등에서 목요일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다채로운 할로윈 축제가 펼쳐진다.  
먼저 조선대학교 장미의거리 일대에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조대장미의거리상점가에서 '로스 스트리트 나잇 할로윈 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서는 할로윈 분위기로 조성된 거리를 걸으며 플리마켓 행사와 할로윈 페이스페인팅, 의상 및 소품대어 등을 통해 본격적인 할로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조대장미의거리상점가와 조대장미의거리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조선대학교의 '빛고를 보은제' 축제와 함께 진행된다.

할로윈 축제와 함께 우원재, 리듬과워, 이하이 등의 초청공연과 학생 주막, 동아리 공연 등 학내 축제와 병행해 더욱 많은 볼거리가 제공된다.  
동구 대인시장에서도 할로윈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남도달밤야시장 시즌 2'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을 불러모았던 대인시장이 다시한번 '남도달밤야시장 할로윈 특집'으로 북적일 예정이다. 28일부터 29일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대인예술판 일대에서 열리는 할로윈 행사는 보다 다양한 행사와 체험으로 준비됐다.

우선 클럽형 무대와 할로윈 조명을 설치해 대학 축제 가요제 출신 가수들의 공연과 호러 디제잉 파티 무대를 진행한다. '전설의 고향'과 '킹덤' 분장팀이 참여한 할로윈 예뎀 광장공연도 열린다. 메인 광장 내에는 할로윈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거나 분장하지 않은 이들은 입장할 수 없다. 남도달밤야시장 포스터 QR코드에 삽입된 신장 폼으로 사전 예약하면 현장에서 호러 분장을 받아볼 수 있다. 분장 체험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호러메니아들을 위한 '남도월야 미궁저택' 귀신의 집 체험과 좀비가 출몰하는 메타버스 AR도 마련됐다. 모바일 AR 미션을 풀면 귀신의집 입장권이 무료로 제공되며 귀신의집 미션을 해결하면 할로윈 경품까지 지급돼 그 재미를 더할 수 있다.  
또 '별별상상정원'에서는 할로윈 핑거푸드와 호

리영화제, 호박캐디 체험 이벤트, 코스프레 포토존 등이 마련돼 있어 먹고 사진찍으며 소중한 10월 마지막 주의 '무서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페이스페인팅과 광장 내 테이블 등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외부 지역 관광객 버스대절 시 주차공간이 제공된다.  
남구에서도 할로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양림동에 위치한 10년후그라운드 가든스테이지에서는 30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이여마켓'이 열린다. 할로윈 장식으로 으스스하게 꾸며진 마켓에 할로윈 코스튬을 입고 방문하면 간식이 담긴 호박 바구니를 선물 받을 수 있다.  
/김민기 기자 kdi@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왕이 자랑 왕이 자랑 / 우리 아가 자는 소리 / (중략) 혼저 재외죽서 / 우리 어진이 단밥 먹었 / 혼저 재외죽서'  
최근 취재자 방문한 제주4·3평화기념 공원에서 '귀에 익숙한' 구절을 발견했다. 4·3항쟁의 아픈 역사가 깃들어 있는 이 곳의 상징조형물 '비설'(飛雪)이 설치된 돌담에서였다. 구불구불한 돌담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조각상은 4·3사건의 비극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죽어간 두 생명이 거센 바람에 흠날리는 눈과 같다는 뜻을 지닌 '비설(飛雪)'은 눈밭에서 어린 아이를 꼭 껴안는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화 했다.  
로운 미래로 떠오르고 있다. 비단 제주만이 아니다. 국립 5·18민주묘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원도 고성 DMZ박물관 등 국내는 물론 베를린 장벽 추모공원, 뉴욕 그라운드 제로 등 해외에서도 역사적 장소나 재해 현장을 순례하는 다크투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전남도가 뒤늦게 뛰어 들면서 남도의 역사현장이 재조명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전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전남은 기본계획 수립, 해설사 배치, 추진사업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남역사교훈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 다크투어, 의향(義鄉)의 미래다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왕이 자랑...'을 접한 나는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 잠시 감회에 젖었다. 사실, 기자는 일찍이 '왕이 자랑'을 들은 적이 없다. 직장생활을 하는 딸을 대신해 육아를 친정어머니가 잠무정이 심한 큰애를 재울 때 종종 이 노래를 불렀다. 처음 들어본 가사가 신기해 무슨 노래냐고 묻자 어머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제주도의 전래 자장가라고 했다.  
수십 여년만에 다시 접한 '왕이 자랑' 자장가는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총탄에 쓰러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딸 아이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편안히 잠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제주 전역에 남아 있는 600여 곳의 4·3 관련 유적 등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현상이다.  
100여 곳의 미술관이 있는 '예술의 섬'이지만 아픈 역사의 흔적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 제주도의 새  
면 전남도는 완도 소안·고흥·광양 등을 코스로 하는 왜란호국 절의명 사적지, 낙안3·1운동 만세운동, 나주 항일학생운동 등을 잇는 일제강점기 항일·일제잔재사적지, 5·18 목포 MBC·영암신복장터 등을 묶는 4·19&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여수·순천10·19탑, 보성군 용치면 지서 등을 연계한 해방 이후 민족 동란사적지 등 4개 거점지역을 다크투어리즘의 성지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의향인 전남은 다크투어리즘의 보고(寶庫)가 될 잠재력이 크다. 하지만 다크투어리즘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객관적인 역사 지식을 배워야 하는 아카이브 보다는 섬세한 스토리텔링으로 감성을 흐드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조형물이나 브랜드 공인처럼 예술로 승화시킨 역사물은 그 어느 것보다 대중의 감성을 파고드는 힘이 강하다. '박제된' 역사현장은 생명력이 짧다.  
(문화·예향담당국장, 선임기자)

### “자고로, 염치가 있어야지”

#### 김요수 작가 산문집 '염치혁명' 펴내... 시사적인 내용 등 70편 수록

“속(분위기)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힘 좀 있다고 떠드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가슴이 턱 막힌다. 그들은 교묘하게 거짓이란 양념을 뿌려 남의 공을 가로채기 일쑤요, 거짓말을 잘도 해서 알랑방귀를 꾸며 염치없는 짓거리를 일삼는다. 힘없는 사람은 단단 달랠 수 없는 가슴만 막힐 뿐이다.”  
김요수 작가가 최근 산문집 '염치혁명' (아는컴퍼니)을 펴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것은 '염치'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은 탓이다. 사전적 의미의 염치는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일컫는다. '염치없다'라는 말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뜻한다.  
책에는 모두 70여 편의 글이 담겨 있다. 모두 김요수 작가가 라디오와 신문에 게재했던 내용을 토대로 엮었으며 시사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평소 김요수가 견지하고 있는 율바름, 삶에 대한 태도,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김요수 작가는 일요일이면 골방에 틀어박혀 글을 썼다고 한다. 글을 쓰며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책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를 아는 삶을 견지한다면 오늘의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권력이 있고 없음을 따지

지 않고, 빈부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사회'는 정적이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믿음이 사회를 지속하게 만든다는 교훈을 줍니다. 잇속 때문에 남을 속이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과 믿음을 퍼뜨리는 '염치혁명'을 시작하시게요.”  
한편 김요수 작가는 지금까지 '탐관오리 필독서', '부서블랑게', '소설 폐하타령 시리즈'(3권), '딱 좋아 딱 좋아' 등을 펴냈으며 현재 광주연합기술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문화재단, 오늘 문화정보원 북라운지서 오픈특강

### 냉장고와 함께한 인류의 음식문화

#### ACC문화재단, 오늘 문화정보원 북라운지서 오픈특강

오늘날 '냉장고'는 필수가전제품 가운데 하나로 부엌과 음식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물이다. 냉장고를 토대로 인류의 음식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오픈특강이 열린다.  
26일 오후 3시 ACC 문화정보원 북라운지서 ACC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우리 안의 화인 음식이야기'가 그것.  
이번 특강에서는 심효운(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예연구사가 '냉장고 인류: 생활문화 연구에서 전시기출까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냉장고 세기라고 정의되는 20세기와 21세기 시대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한 심 연구사는 지난 2019년부터 콘텐츠원



캠퍼스 사업으로 진행해 온 베트남 다문화가정, 고려인의 부엌 등의 콘텐츠 기획과 개발과정, 결과물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냉장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전시 '냉장고 환상', 도서 '냉장고 인류, 차가움의 연대기'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의 진화 과정을 관객과 공유할 예정이다.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ACC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현 기자 skypark@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방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대인시장	한화생명	(구)청자대방	KT 광주빌딩
대중병원	(구)김병원	추천서관	광주중앙초등학교
<b>금남새마을금고</b>			
세종약기	주최장 임구	예술의거리	동양저축은행
음식의 거리		원리사	SK 브로드밴드
금호시민 문화관	지하철 ④번 출구	금남로공원	(구)도청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062-223-8007**